

제13절 덕천리(德川里)[속명 : 마분(馬墳)]

1. 마을의 자연환경

쇠치봉의 지맥(支脈)인 이항령(梨項嶺)의 산등(山嶺)을 따라 동해안에 접(接)한 마을로, 동쪽으로 망(望)재 너머 대해(大海)가 있으며, 서쪽은 수리골들 너머에 구장동(龜藏洞)이 있다. 남쪽은 내평들이 있고, 내(川)를 건너 죽변면 후정리의 장수봉이 우뚝 솟아있고, 북쪽은 분투골과 장유대(將遊臺)와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신한울원자력 1, 2호기가 건설되면서, 폐동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500년경에 광산 노씨(光山盧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두 선비가 해안 가까이에 농촌을 개척하여 살아왔다. 이 마을은 조선 선조 때 영동지방에서 가장 치열했던 의병의 전적지(戰迹地)로 인마(人馬)가 많이 죽어 무덤이 많다 하여 마을 이름을 마분(馬墳)이라 하였다. 또한, 전설에 의하면 전란(戰亂) 때 싸움에 저서 천추만대(千秋萬代)로 분하다 하여 만분으로 불려왔다고도 전한다. 세월이 흘러 마을 앞 모래 독에 말무덤이 많다 하여 오늘날에도 마분동(馬墳洞)이라 하고 있다. 퇴천동(退川洞)과 덕금동(德金洞)은 1978년에 원자력발전소 부지로 편입되어 폐동되었으며, 내평(內坪)들 아래쪽에 삼거리라는 마을이 새로 생겼다.

3. 마을의 특징

1) 분투골(奮鬪谷)

임란(壬亂) 때 김언륜(金彦倫) 장군이 왜적과 싸우다가 분하게 전사(戰死)하였다 하여 지어진 지명(地名)이다.

2) 벌이개(伐夷浦)

임란(壬亂) 때 의병장 김언륜(金彦倫) 장군이 쇠도리개로 왜군을 쳐부숴 대승(大勝)하였다 하여 지어진 지명(地名)이다.

3) 성황당(城隍堂)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해변에 당(堂)집과 노송(老松)으로 된 성황당이 있고, 또 다른

1개소는 마을 입구에 있어 팽나무로 되어 학의 형곡이라 하여 이 성황에 당집을 짓거나 주위에 돌을 쌓으면 해가 된다고 하여 그대로 모시고 있으며,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제사를 올린다.

제14절 두천1리(斗川一里)[속명 : 바깥말래]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말래에서 내려가는 물이 하당리(下塘里)로 흐르고, 서쪽은 샛갯봉(笠峯) 지맥(支脈)이 뻗어 내려오는 곳에 심씨(沈氏) 부부의 효자각(孝子閣)이 있으며, 북쪽은 뒷재 넘어 상당리(上塘里)가 있다. 마을회관은 2005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최근에 마을 입구에 십이령민속촌이 조성되어 있다. 십이령고갯길로 오르는 초입에 ‘울진내성행상불망비’를 모신 비각이 있으며, 바로 뒤편에 김태희 선정비와 고갯마루에 심천범 효자각과 성황당이 있다.

2. 마을의 역사

1800년경에 이 마을을 개척하여 말래(斗川)라 이름하였다. 이곳은 영남내륙과 한양(漢陽)으로 가는 울진십이령(嶺)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울진현령이 부임할 때는 반드시 이곳을 거쳐 가는데 어느 날 현령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안말래(內斗川) 장평(長坪)에서 숙박하게 되었다. 자고 나니 타고 온 말이 간 곳 없어 종일 말을 찾다 보니 바깥말래(外斗川) 다래덩굴 밑에서 말을 찾았다. 이런 연유로 마을을 마래(馬來)라고 부르다가 현재의 두천1리(斗川一里)인 바깥말래(外斗川)로 정착했다. 또 십이령바지계길을 통한 주요 물산이 부구리 흥부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미역이므로, 이곳 말래 주막촌에서 선질꾼[십이령바지계 상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수량 단위인 ‘말 두(斗)’를 차용해 말래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3. 가구 분포

총 41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신안 주씨(新安朱氏), 청송 심씨(靑松沈氏)와 삼척 심씨(三陟沈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